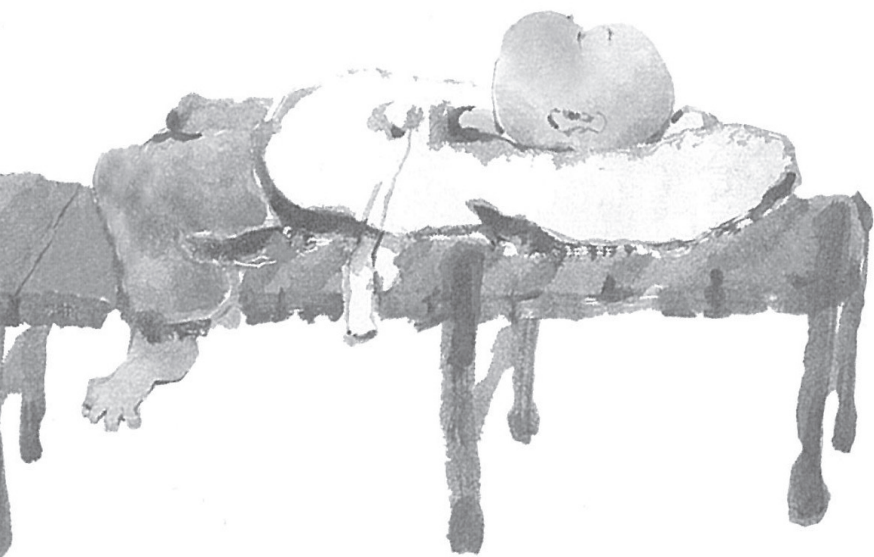


지체의 말씀

불기 2562년 6월 / 통권 448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시와 불교의 만남

시와 불교의 만남



證道歌(증도가)

사자 후 무 외 설 백수 문 지 개 뇌 열
獅子吼無畏說이여 百獸聞之皆腦裂이라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두려움 없는 설법이여
온갖 짐승들이 들으면 모두 머리가 찢어진다네

향상 분 파 실 각 위 천룡 적 청 생 흔 열
香象奔波失却威하고 天龍寂聽生欣悅이로다

코기리는 냄새를 풍기며 분주하니 위엄을 잃고
천룡은 고요히 듣고 즐거워한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불교와 음악 / 운성스님

불교상식 · 7

천수경 강의(千手經 講義)

부처님의 말씀 · 12

알림마당 · 17

대광사 5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5월 유치원 행사

어린이법회 5월 활동

템플스테이 봄 관광주간 안내



표지그림 / 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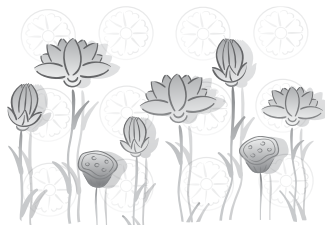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Tel. 055) 602-6267





부처님 오신 날

서경스님 / 대광사 주지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포어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이다.

즉 사람들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면 세상은 당연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말이다. ‘천상천하에 오직 내가 존귀하니,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 마땅히 평안케 하리라(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하신 부처님의 탄생계와도 내용이 같다.

자기 자신이 오직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스스로 알아라! 하신 외침이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 나만이 존귀하다는 것만이 아닌 타인의 삶도 존귀하다는 사실도 알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자기 자신의 생활을 지혜와 자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라. 나의 삶이 해결되면 더 나아가 자신만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세상에 자기가 주인인줄 모르고 해매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 또한 행복해지도록 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부를 한답시고 시작한지가 어언 이십 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여전히 자기 감정하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다.

자기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또한 남의 가슴에 아픔을 안겨주는 존재였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또 참회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과,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으면 안된다는 두려움에서 온다. 여기에서 두려움 역시 잃고 싶지 않은 욕망이다. 사람은 욕망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욕망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되면 문제가 발생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는 착각에 빠져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나 자신 역시 그리하며 살아왔다. 그러니 감정하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고만 것이다. 앞으로는 지난 나의 과오를 발판으로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거듭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는다. 나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은 이들에게 앞드려 사죄드린다.

부처님처럼 세상의 모든 고통을 편안케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이가 없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서원한다.



불교 상식

천수경 강의(千手經 講義)

7. 준제계송(准提偈頌)과 준제진언(准提眞言)

준제는 범어로서 청정(淸淨)이란 뜻입니다. 『천수경』에서는 준제관음을 말하는 것이며, 준제관음은 6관음 중의 하나이고,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를 제도하는 관음이십니다(天人丈夫觀音). 준제관음은 부처님을 출생시키는 불모(佛母)로 신앙됩니다. 이것이 ‘준제불모’ 신앙입니다.

준제공덕취(准提功德聚)
 적정심상송(寂靜心常誦)
 일체제대난(一切諸大難)
 무능침시인(無能侵是人)
 천상급인간(天上及人間)
 수복여불등(受福如佛等)
 우차여의주(遇此如意珠)
 정획무등등(定獲無等等)

준제진언의 공덕은 한이 없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온갖 환란이
 이 사람에게에는 침범할 수 없도다.
 하늘나라에서나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음이 부처님과 같으리.
 이 준제주를 만났으니
 반드시 최상의 결과를 성취하리라.

이러한 계송에 이어서 ‘나무칠구지불모대준제보살’을 호칭한다. ‘구지’는 범어이며 뜻으로는 숫자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구지는 십만, 천만, 만억 등의 많은 수를 구지라 합니다.

준제보살은 칠구지 동안의 불모이기 때문에 칠구지불모대준제보살이라 합니다. 계속하여 정법계진언과 호신진언, 관세음보살의 육자대명왕 진언을 외운 다음 ‘준제진언’에 들어갑니다. ‘나무 사다남 삼막삼뫼다 구치남 다나타 음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 부립’이 바로 준제진언입니다. 이 진언에는 신비력을 찬탄하는 후렴의 계송이 또 나옵니다.

아금지송대준제(我今持誦大准提)
 즉발보리광대원(卽發菩提廣大願)
 원아정혜속원명(願我定慧速圓明)
 원아공덕개성취(願我功德皆成就)
 원아승복변장엄(願我勝福遍莊嚴)
 원공중생성불도(願共眾生成佛道)

나는 지금 준제주를 외우면서
 성불을 향한 광대한 원을 세웁니다.
 나는 선정이 원만하고 지혜가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공덕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좋은 복으로 온 누리를 장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중생과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준제관음신앙은 밀교에서 중요시됩니다. 『천수경』에서도 준제진언을 전후하여 다른 진언과 계송을 거듭 첨가한 것은 준제진언에 비중을 크게 둔 것입니다.

『천수경』은 관음신앙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식 교전으로 엮여진 것입니다. 이에 준제관음을 나타냄으로써 그 종반부에 당도했음을 보여 줍니다. 『천수경』에 있어서 진언은 준제진언이 마지막입니다. 준제진언을 끝으로 관음신앙의 체계는 더욱 튼튼히 세워졌습니다. 다음 항목은 발원을 통해서 경의 말미를 맞습니다.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제1품 백의 품

9. 헤마바타의 경 [Hemavata-sutta]

“오늘은 보름이 되는 포살의 날, 신성한 밤이 가까워 졌다. 자, 최상의 명성을 지닌 스승이신 님, 부처님을 뵈러 가자.

“그는 살아있는 것에 대해 마음을 잘 정립하고 있는 것일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사유를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그는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을 잘 정립하고 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사유를 잘 다스리고 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있는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 삼가고 있는 것인가? 그는 방일에서 떠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선정을 버리지 않고 있는가?”

“그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 삼가고 있다. 그는 방일에서 떠나 있고, 깨달은 님으로 선정을 버리지 않는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거친 욕설을 하지 않을까? 남을 중상을 하지 않을까?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을까?”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친 욕설을 하지 않는다. 그는 남을 중상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한다.”



“그는 감각적 쾌락에 물들지 않았는가? 그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지 않는가? 어리석음을 벗어났을까?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눈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감각적 쾌락에 물들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지 않고, 어리석음을 벗어났다. 깨달은 님으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눈을 갖고 있다.”

“그는 명지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청정할까? 그는 온갖 번뇌의 때를 소멸해 버렸을까? 이제 그가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까?”

“그는 명지를 갖추고 있고, 그의 행동은 청정하고, 그는 온갖 번뇌를 소멸해 버렸고, 이제 다시 그가 태어나는 일은 없다.”

“그는 행동으로나 언어로 보나 성자의 마음을 갖추고, 명지와 덕행을 성취하였으니, 그대는 당연히 그를 찬양하리라.”

그는 행동으로나 언어로 보나 성자의 마음을 온전히 갖추었다. 자, 명지와 덕행을 성취하신 님, 고타마를 뵈러 가자.

사슴같은 정강이에 여위었으나 강건하고 적게 드시고 탐욕없이 숲속에서 조용히 선정에 드시는 님, 자, 고타마를 뵈러 가자.

온갖 욕망을 돌아보지 않고, 마치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홀로 가는 그를 찾아 죽음의 숙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물어보자.”

(두 수행자) “진리를 가르치시고, 설하시는 분, 모든 현상의 피안에 도달하여 원한과 두려움을 뛰어넘은 깨달은 님, 부처님에게 물어 보자.”

“무엇에 의해서 세상이 생겨납니까? 무엇에 의해 친밀하게 됩니



까? 세상은 무엇에 집착해 있으며, 또 무엇 때문에 해를 입고 있습니까?”

. [세존] “헤마바따여, 여섯 가지 것에 의해서 세상이 생겨나고, 여섯 가지 것에 의해서 친밀하게 되고, 세상은 여섯 가지 것에 집착하고 있고, 그 여섯 가지 때문에 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해를 입는다는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 [세존] “세상의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종류와 여섯 번째 쾌락인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 이와 같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대들에게 있는 그대로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나는 그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누가 거센 물결을 건넵니까? 누가 큰 바다¹⁾를 건넵니까?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심연에 누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 [세존] “언제나 계행을 갖추고, 지혜가 있고, 삼매에 들고, 성찰할 줄 알고, 마음챙김이 있는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거센 물결을 건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지각에서 떠나 모든 결박을 뛰어넘어, 존재에 대한 욕구를 떨쳐 버린 사람²⁾, 그는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깊은 지혜가 있고 미묘한 뜻을 보며, 아무 것도 없이 감각적 쾌락의 세계라는 존재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서 해탈하여 신성한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위없는 명성을 지니고, 미묘한 궁극을 보며, 지혜를 알려주고,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알고 현명하며, 고귀한 길을 가고 있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여명이 밝아지고 빛이 떠올랐습니다. 거센 물결을 건너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올바로 깨달은 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이나 되는 저희 야차 무리들은神通력이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그대에게 귀의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위없는 스승이 기 때문입니다.

올바로 원만히 깨들은 님과 잘 설해진 뛰어난 가르침에 예경하면 서, 저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 -

-
- 1). SN.IV.157 수행승들이여, 시각(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은 인간의 바다로서 그 거센 물결은 형상(소리, 냄새, 맛, 감촉, 사물)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 형상으로 이루어진 거센 물결을 건너어낸다면 그는 파도와 소용돌이와 상어와 나찰이 많은 시각의 바다를 건너 그것을 뛰어넘어 피안에 도달하여 대지 위에 선 고귀한 자라고 불린다.
 - 2). SN. I .53 하늘 아들 쑤닷따가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칼날이 몸에 와 닿은 것처럼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것처럼 감각적 쾌락의 탐욕을 버리고, 수행승은 올바른 마음챙김으로 유행하세.' 그러자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읊으셨다. '칼날이 몸에 와 닿은 것처럼,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것처럼, 존재의 다발들이 실체라는 견해를 버리고 수행승은 올바른 마음챙김으로 출가하세.'

대광사 6월 법회 및 행사

- ◆ 6월 2일 제20회 청소년을 위한 산사음악회(오후5시)
 - ◆ 6월 7일 관음재일 다라니기도(오후1시 대웅전)
 - ◆ 6월 8일~9일 설악산 봉정암 성지순례(1박2일)
 - ◆ 6월 14일 초하루기도 입재
 - ◆ 6월 16일 초하루 기도 회향
 - ◆ 6월 27일 불대17기 1학기 종강
 - ◆ 6월 28일 음력 5월 보름법회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제20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 일시 : 2018년 6월2일(토) 오후 7시
- 장소 : 대광사 경내



태백동 급식소 후원금 현황입니다.

(3월 20일~4월 16일)

| | | | |
|------------|------------|---------------|-------------|
| 홍승운 20,000 | 황두관 10,000 | (주)카텍 300,000 | 조권일 100,000 |
| 김재이 30,000 | 김태연 20,000 | 박미애 10,000 | 조성부 100,000 |
| 오미라 30,000 | 김인복 10,000 | 김지현 100,000 | 이미정 30,000 |
| 공상섭 30,000 | 홍예현 50,000 | 박덕선 100,000 | 찬불단 50,000 |
| 박진호 50,000 | 최진환 10,000 | 유봉약 10,000 | 서경스님 50,000 |

◆ 급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지원금(3.20~4.16)

| | | |
|------------|------------|----------------|
| 하형규 10,000 | 강란 10,000 | 대광사 후원회 50,000 |
| 유미란 50,000 | 홍예현 10,000 | 오미라 10,000 |
| 안옥래 10,000 | 금강지 10,000 | 김인복 30,000 |
| | | 이봉숙 10,000 |
| | | 서경스님 100,000 |

♥ 지혜의말씀

(영) 청량심 10,000

♥ 초하루 공양

음력 2월 누락자 - 대도화 300,000, 음력 3월 - 대광지 100,000

♥ 용왕재 공양

이용원(꽃공양) 20,000 안종권 1,000,000



6월 유치원 행사

1. 2018학년도 아버지 참여수업

- 일시 : 6월 23일(토) 오전10시, 오후2시
- 대상 : 원아랑 아버지
- 장소 : 대광유치원 각반교실 및 운동장

2. 어린이뮤지컬 관람

- 일시 : 6. 29(금)
- 장소 : 구민회관
- 내용 : 꿀벌마야와 곤충친구들
- 대상 : 원아전체

6월 어린이법회 활동

1. 야외법회

- 일시 : 6월 16일(토)



청소년과 함께하는

대광사 산사음악회

스무번째 이야기

20th

2018년 6월 2일(토) 늦은 7시 진해대광사

대인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